

발명가임을 자처하는 최효승 씨(44·수원시 팔달구)는 특허출원과 관련해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최씨가 발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특허는 남의 얘기나 다름없었다.

우선 특허 하나를 출원하는 데 필요한 서류만도 수십여 종. 변리사 비용이 부담됐던 최씨는 특허를 얻기 위해 특허청 문턱을 수십 번씩 드나들어야 했다.

자료를 준비해가면 '이번에는 이러한 서류가 빠졌다'고 돌려세우는 특허청 직원이 못마땅했다는 최씨.

특허를 출원해 심사하고 새로 등록으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2~3년은 기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써 개발한 제품이 누군가가 이미 특허로 등록해 놓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허탈감도 컸다.

그렇다고 하루에도 수천 건이 등록되는 특허정보를 일일이 손으로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이런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있다. 마우스 하나로 특허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자신이 출원한 특허가 어떤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집안에서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직접 찾아갈 일도 없어진 것은 당연. 모든 질의·응답을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특허청이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온라인 특허정보시스템 '특허넷(KIPOnet)'이 최근 완성됐기 때문이다.

■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총비용 318억원, 시스템 개발기간만 3년이 걸린 특허넷 시스템은 지난 99년 세계 최초로 특허·실용·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출원·접수·심사·등록 및 공보발간 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전자출원 자동화 시스템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전자출원시스템을 시행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유

를 문자로 바꿔주는 장치)를 통해 전산화한다. 또한 접수한 출원서를 심사·결재하는 처리과정 역시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허넷은 대민서비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를 청내에서도 디지털데이터로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심사·심판 등 업무처리 과정에 생성된 지식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직원간 공유 및 재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 연 2000억원 절감

99년부터 시작한 특허넷 시스템은 서비스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공보 책자를 인터넷으로 발간하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B 구축비용 절감 등 행정처리비용 절감효과만도 지난해 연간 212억원에 달했다. 인터넷 출원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등 일반인의 비용절감까지 포함하면 경제적인 효과만도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30만명이 온라인 특허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4배 가량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외부서비스 외에도 특허청 내 업무처리의 효율화에도 큰 성과를 보고있다.

모든 특허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청내 전자결재율을 99% 수준으로 높여 업무자동화가 완전히 정착했다. 이에 따라 99년 평균 23.6개월이던 심사처리 기간도 2001년 21.3개월로 줄었다.

출처 매일경제

발특2002/9

특허출원 까다롭다고?
클릭하면 간단히 해결

럽 20개국)이 참여하는 EPO가 전부다.

하지만 특허출원에서 내부심사, 공보 발간 업무까지 자동화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특허넷으로 특허출원

특허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인터넷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24만여 건의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처리했다. 의견서 등 관련문서를 포함하면 문서만도 100만건, 560만 페이지 분량이다. 민원인이 오프라인상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이 서류를 스캐너를 통해 이미지로 읽어들이어 OCR(이미지